

# “농어업 2차산업화 추진”

李 당선인-농어민 단체 대표 간담회

## “비생산·낭비 요인 제거...유통구조 과감히 개선”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21일 인수 사무실에서 열린 농어민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농어업 부분을 2차 산업화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당선인은 이날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의 통합에 대해 “농어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선진화의 출발점”이라고 밝힌 뒤 “우리 농촌이 1차 산업에 머물지 않고 2, 3차 산업으로 가는 농업설계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농수산식품부터 거듭나는 것은 산업융합에 초점을 둔 조직개편”이라며 “식품산업을 농수산분야와 융합하는 것은 1차 생산에 머물러 있는 농수산업을 2차 가공유통업으로 육성시켜 ‘농장에서 식탁까지’가

는 과정을 산업화함으로써 FTA를 극복하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이어 “농어촌의 비생산적·낭비적 요인을 정책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농촌의 생산자가 대도시 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제도로 유통구조의 과감한 개선을 통해 농가 수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농어촌에) 어려움이 있지만 길이 있고 그 길을 따라서 꾸준히 나가다 보면 잡사는 농촌을 만들어 사람들이 농촌으로 되돌아가는 시대를 열 수 있다”며 “차기 정부는 기업이 잘되는 것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지만 농(어)촌이 잘사는 것을 더욱 중요한 정책의 밑그림으로 그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특히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않는 정책이 오랜 기간 있었지만 이제는 양자가 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확고한 정책을 펴겠다”고 새 농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박규 농업경영인중앙회장은 40개 농어민 단체를 대표한 인사말을 통해 “350만 농민들로부터 좋은 점수를 받는 정부가 돼야 한다”며 “광에 버림받은 한 마리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와 같은 신념과 애정을 가진 지도자가 돼 달라”고 이 당선인에 당부했다.

박규 농업경영인 회장은 이어 한미 FTA 추진에 대한 농민들의 상당한 근심과 우려를 전달하고 농촌진흥청 폐지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또 농어민 부채 탕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과 비료나 농약 등 농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인하 또는 면제, 쌀 목표 가격 동결화, 농협 개혁 등을 주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새정부 첫총리 ‘한승수 카드’ 급부상



새 정부 초대 총리 후보로 한승수(사진) 유엔 기후변화특사가 급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측근은 21일 “10여 명에 달했던 후보군이 어느 정도 좁혀졌다”면서 “기존의 유력 후보군 이외에 그동안 각광받지 못했던 한승수 특사가 비중 있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측근도 “한 특사가 막관 유력 후보군에 포함돼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면서 “지역 및 학교 안배 차원에서 충분히 매력있는 카드”라고 전했다. 한 특사는 강원도 춘천 출신으로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한 특사는 1936년생으로 고령인 점이 부담으로 작용, 애초 검토대상에서 빠졌으나 4월 총선과 당 화합이라는 정치적

차원에서 검토했던 ‘박근혜 카드’가 물 건너 간 뒤 ‘일 중심’ 총리 후보군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막관에 급부상했다는 후문이다.

으로 꼽힌다.

손병두 서강대 총장과 이경숙 대통령직 인수위원장도 여전히 후보군에 올라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손 총장은 기업인 출신으로 재계 투자유치 확대 등이 당선인의 ‘경제관’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실무형 총리에 적임자라는 점에서 유력 후보로 분류된다.

이 위원장은 여성이란 상징성 이외에 숙명여대의 혁신을 이끈 대학 CEO(최고경영자) 총장으로서 복잡다단한 인수위를 무난하게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고 있다.

손 총장과 이 위원장은 초대 교육과학기술부(최고의 교육부+과학기술부) 장관 후보 물망에도 올라 있다. 총리 지명자는 이른바 급주 초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오후 서울 삼성동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농어민대표단 간담회에서 박규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장(왼쪽)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정부 조직개편안 국회 발의

## ‘13부2처17청’ 인수위 원안대로...행자위 심의 마찰 예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현행 18부4처의 중앙 행정조직 가운데 통일부 등 5개 부를 축소조정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대통령직 인수위 등이 일부 부처의 존치를 강력 요구하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 마찰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안상수 원내대표 명의로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법안 45개를 정식 발의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이 이날 국회에 제출하는 법안은 제정 법률안이 ‘방통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2개이고 개정안은 43개에 달한다. 한나라당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에 따라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

원회를 중심으로 조직개편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원내1당인 대통령직 인수위는 통일부와 여성부 등 5부의 통폐합 여부를 놓고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원안대로 밀어붙인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양당간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인수위가 국회에 제출한 조직개편안은 18부4처18청10위원회인 중앙 행정조직 가운데 통일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여성부, 과학기술부 등을 통폐합해 13부2처17청5위원회로 축소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처간 통폐합에 따라 신설되는 부처의 명칭을 놓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수정될 가능

성이 있어 보인다.

한편 박재원 정부개혁TF팀장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공무원인력의 감축문제를 거론하며 “올해 7천명의 공무원 정원이 줄어든다고 조직개편이 완료되면 3만9천원정도의 정원이 줄어든다”며 “6만명 감축한다는 얘기는 어디서 나왔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이어 “올해 7천명의 정원이 줄어들지만 그중 3천명 정도는 출연기관으로 전환되거나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고 나머지 3천500명은 현원으로 당분간 남겨 된다”며 “규제개혁 추진업무에 동원될 수 있고 ‘집값대’ 여처를 발로 뛰는 행정, 민생현장조사단 구성에 투입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5년간 매년 1%씩 공무원 수 줄여”

## 행자부 계획안...공무원 노조 등 반발 클 듯

새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공무원 조직·인사를 총괄하게 된 행정자치부(새 행정안전부)는 ‘이명박 정부’의 재임기간인 2008년 2월부터 향후 5년간 ‘매년 1% 이상’의 무적으로 공무원 수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이는 새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작업과 병행해 참여정부 재임기간 6만여명이나 늘어난 공무원을 ‘원상회복’ 수준으로 줄여겠다는

것이어서 공무원 노동조직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대의비’로 공무원 감축방안을 마련, 향후 5년간 해마다 1% 이상씩 공무원 전체 정원을 반드시 감축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7년말 현재 전체 공무원은 94만6천여 명 수준이며 이 가운데 국가공무원은 59만

여명, 나머지는 지방공무원이다. 특히 참여정부 5년 동안 국가공무원은 6만1천여명이 늘었다.

정부 관계자는 “대부처-대국” 원칙에 맞춰 정부조직을 개편한 뒤 이에 맞춰 각 부처의 하부조직을 개편하게 되면 공무원수는 줄어줄 수 밖에 없다”면서 “특히 ‘정부부처 군살을 빼야 한다’는 게 인수위의 방침인 만큼 인위적인 공무원 감축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인재과학부 → 교육과학부로 수정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조직개편안의 ‘인재과학부’ 명칭과 관련, 교육계의 반발 등을 감안해 ‘교육과학부’로 수정키로 했다.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례 간사단 회의에서 “당초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 등을 통합한 부(部)의 명칭을 인재과

학부로 정했으나 교육계와 한나라당의 강력한 의견 제시가 있어서 교육과학부로 변경키로 했다”고 밝혔다.

인수위의 이 같은 결정은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정부 부처 명에 ‘교육’이라는 단어가 빠진 데 대해 최근 교육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에서 강력하게 반발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8일 인수위를 향한 방문, “‘교육’은 단순한 사전적 용어가 아니라 정부 수립 이후 국민의 사고의 일상을 지배하는 사실상의 관습 용어”라며 “‘인재’는 엘리트주의적 용어로서 전 국민을 교육 대상으로 해야 할 부처명으로는 매우 위험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연합뉴스

**새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서구점 ☎ 361-8111  
 북구점 ☎ 529-8111

제18회 공인중개사시험 새출신 전국 수석 2명 배출(현대환(남·48), 최영아(여·31))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저자직강! 재능방송·한국경제TV·부동산T·V출연 강사진!

개강 2월 1일 (주,야) 기본서 이룬 2개월 완성  
 “첫진도 시작반” **국비무료**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교육비환급  
 현재 강의를(매일 무료강장 환영)

●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 전문학원(전국33개 학원제) ● 최고의 교수진들로 강의 질하는 학원 1위 ● 신해학력개발비 추천한 1등급 ● 믿음과 신뢰를 주는 학원 1위

합격률 1위 전국수석합격 **새출 행정고시학원**  
 서구점 ☎ 361-8111  
 북구점 ☎ 529-8111  
 ▶ 계림동 구시정사거리(중흥동) 대안빌딩 6층

**전액국비수강생모집**

**부동산실무**

구분	교육과정	교육기간	개강
재직자 및 일반인	공인중개사	2개월	매월초
	주택관리사	2개월	매월초

※ 2008년도 대비 6개월과정 특별반 집중수강!  
 (주간반/야간반/주말반)

**컴퓨터**

구분	교육과정	교육기간	개강
재직자 및 일반인	컴퓨터활용실무	2개월	12월 3일
	CAD	2개월	매월초
	워드실기	1개월	수시
	컴활실기	1개월	수시
	정보화기초 1,2	5주	매월초

※ 교육대상 : ■ 고용보험에 가입된 재직자 교육수수료 현금  
 ■ 일반인 및 대학생 수강료 특별할인

◎ 노동부지정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현대직업전문학교**  
 동부캠퍼스 ☎ 224-4560, 232-1088 http://www.hdedu.co.kr

= 가장 확실한 합격의 길!! 무등과 함께 하십시오!! =

**7,9급 공무원 완전 대비**

== 강좌 직종 ==

행정직	교수직	관세직	감사직	법원직	검찰직	교정직	보통직	소방직	전산직	복지직	토목직	검출직	보건직
-----	-----	-----	-----	-----	-----	-----	-----	-----	-----	-----	-----	-----	-----

= 47년 동안 합격시켜 본 경험이란 헤아릴 수 없을 값을 치른 보물이다. =

**정규이론D반** **개강 2월 1일** **9문제풀이반**  
 = 2개월 완성 이론반 = **2월 1일** = 1개월 완성 코스 =

www.mdgoal.co.kr ☎ 222-4560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합격률 1위**

기본서 이룬 2개월 완성  
**“첫진도 시작반”**

개강 2월 1일

**주택관리사**  
 첫진도 시작반 2개월 완성

국비 무료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업료 환급  
 >>> “첫진도 시작반” <<<

**광주고시학원** 본원 ☎ 227-8003 (7마로동 앞 현명빌딩 9층)  
 첨단점 ☎ 971-0002 (백마로 현명빌딩 4층)

www.hanbitgosi.co.kr = 2008년 공무원 합격은 한빛이 주도한다.

2008년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시험 거침없이 합격하라! - 한빛이 응원합니다!

**7,9급 공무원 합격대특강**  
 개설직종: 행정직, 교육행정직, 세무직, 법원직, 검찰직, 사회복지, 군무원, 교정직, 소방직, 농업직, 토목직, 건축직, 전산직, 보건의, 기술직

**9급 문제풀이반 (1개월원생)** 개강 2월 1일  
**9급 이론박수반 (2개월원생)** 전직종 첫진도

사전에야원수강 **한빛공무원학원** 전대훈은 부구청장 (062) 252-0252